

Bethany Home을 떠나며

선교센터 방문 목회자 후기

2017년 11월 6일



“그분의 음성과 손길”

13년만에 안식의 시간을 받아 이곳에서 보낸 3주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안락하면서도 영성이 느껴지고,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휴식과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또한 조용하고 평온하고 깨끗한 도시 Lexington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과 손길을 느끼기에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올네이션스 회복센터에서의 시간은 제게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좋은 분들을 만났고, 더 좋은 공간이었고, 더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최 헌 목사님과 이미생 교수님을 만난 것은 이곳에서의 시간 뿐 아니라 제 삶에 있어 매우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분의 환대와 사랑 덕분에 따듯했고 편안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울러 두 분의 순수한 열정과 센터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보며 적지 않게 감동했습니다. 전영욱 전도사님과 정재우 전도사님의 귀한 수고와 헌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 오실 지친 영혼들에게 올네이션스 회복센터가 저에게 처럼 완벽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혁빈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먼저는 안식관을 알게 해주시고
최 현목사님 이미생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에는 큰 기대없이 잠시 쉬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휴가를 보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좀 편히 쉬다가 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쉼은 저에게 참 필요한 것이었고 안식관에서 4일은 너무나 큰 쉼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다가 온 여정이었습니다.

먼저는 마치 휴양지의 별장처럼 저희에게 더없이 아늑했던 안식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품들 하나하나가 세심하고 정성어린 것이어서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히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교역자분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저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나아가 혼적인 지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교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누리게 되는 깊은 영적인 교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 평안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이분들을 통해서 안식관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이민자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어딘지 알 수 없는 프레셔와 답답함을 저 또한 마음 한구석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한 모금 생수처럼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두 분의 삶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런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제와 만남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니 가장 큰 안식은 두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담담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과 삶이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안식과 쉼과 풍성함이 되듯이 그렇게 두 분이 살아가시기만을...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이종재 목사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담임)